

#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曹 喜 昌\*

## <目次>

- |             |                    |
|-------------|--------------------|
| I. 序論       | IV. 蘇齋의 詩世界        |
| II. 生涯      | V. 諸家の 評 및 文學史的 意義 |
| III. 文學的 背景 | VI. 結論             |

## <국문 초록>

소재는 宦路에 들어선지 3년 만에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22년의 세월을 謫居地에서 보냈다. 그의 전반 생애가 본인의 삶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外變으로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오히려 척박하고 불우한 환경을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켜 불후의 문학과 철학을 정립시키는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유배지에서 杜甫에 침잠되어 두보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등과도 사우관계를 맺어 三唐派 출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그가 남긴 1,449수의 시중에는 유배지에서 창작된 시가 1,023首都 대부분에 속하여 유배시인으로 통한다.

그의 시를 분석해보면 내용에 따라 ‘離別의 情恨과 至親에 대한 그리움’, ‘知己와의 神交를 통한 삶의 위안’, ‘拘束된 自我와 학문에의 침잠’, ‘사물에 투영된 君子的 삶의 지혜’, ‘流配客의 고뇌와 憂國 憐閔의情’으로 요약된다.

소재의 시풍을 대체로 ‘萬鈞之勢’와 같다고 평하며 ‘雄拔, 淵宏’ 하다고 말하고 있다. 解配 후에는 湖陰 鄭士龍, 芝川 黃廷彧 등과 함께 湖蘇芝로 지칭되어 조선 후기 官人 文學을 최고조로 올려놓음으로서 ‘館閣三傑’로 칭송되었다.

선조 조에는 宋詩, 특히 江西詩派를 배우려는 시적지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hichang47@paran.com

道學詩가 활발하게 창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宋詩의 散文性, 技巧主義에 반발하여, 음악성과 서정성, 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詩的 지향으로 唐詩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소재는 이의 향도적 역할을 했던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노수신 시의 특징은 人名, 地名, 官職名 등의 고유명사를 시어로 적극 활용하였고 俚語와 接續詞를 적절히 배치시켜 탁월한 시적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사적 기교와 표현에서는 重義法과 反復法, 對話體 등을 적절히 구사하는 시적 기교를 확인 할 수 있다.

소재는 유배지에서 『夙興夜寐箴解』 및 『人心道心辨』, 『執中說』 등을 저술하고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一齋 李恒 등과 논변하였다. 이 논문들은 주자 학파는 이질적인 心性論과 工夫論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와 후대의 사류들로부터 異端에 몰든 학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문학과 함께 陽明學者로의 위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선조16년(1583)에 『改正大學』을 찬집하였는데 종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蘇齋先生大學集錄』을 지칭하는 것이다.

소재는 유배의 좌절을 초극하여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화시켜 왕성한 창작력과 비장함으로 격조 높은 작품세계를 이루어 내었다. 性情을 주로 하는 唐詩風을 적극 수용하여 學杜의 지평을 열었고 세칭 館閣三傑로써 또는 湖蘇芝로써 조선 중기문학의 큰 획을 이룬 것이다.

【주제어】 湖蘇芝, 館閣三傑, 唐詩, 流配, 陽明學

## I. 序論

### 1.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이조 중기16C 穆陵盛世의 왕성한 文運을 안고 활약했던 蘇齋 盧守愼(1515~1590)의 詩文學과 조선중기의 문학일단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소재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국문학, 한문학, 한국사 등

국학에 대한 서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의 생애와 文學的 背景의 연구가 미흡하므로 그의 문집과 부록 『宗家秘錄』 7冊 등을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그의 시문학을 분석하고 蘇齋 文學의 文學史的 的의를 밝히고자 한다. 소재는 宦路에 들어선지 3년 만에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22년의 긴 세월을 謫居地에서 보냈다. 그의 前半 生涯는 그가 지향했던 삶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外變으로 인하여 至親과 知人과의 유리된 공간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갖추고 있었던 천재적 文才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승화 시켰고 후일 새로운 跳躍的 環境을 예비해 나갔다. 그가 살았던 16C는 조선초기부터 中, 明宗 朝까지 유행했던 宋詩 文學이 퇴조하고 宣祖 때부터 시풍의 변화가 두드러져 唐詩風으로 전환되면서 湖蘇芝와 三唐詩人이 출현하였다. 문학에 있어서는 당송시풍의 전환기적 시기로서 소재 이외에도 容齋 李荇(1478~1534), 湖陰 鄭士龍(1491~1570), 訥齋 朴祥(1474~1530), 企齋 申光漢(1484~1555), 芝川 黃廷彧(1532~1607) 등의 海東 江西詩派와 孤竹 崔慶昌(1539~1583), 玉峰 白光勳(1538~1482), 蓀谷 李達(1539?~1612?) 등 三唐詩人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다. 유배지에서 杜甫에 沈潛했던 소재는 두보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과 오랫동안 師友關係를 맺고 그들의 시풍에도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學唐의 앞뒤를 잇고 三唐詩人에게 큰 영향을 미친 소재에 대한 연구는 朝鮮前期 시풍변화의 맥을 살피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소재의 시 全般은 그가 보낸 22년의 유배지에서 창작된 시가 대부분에 속한다. 그가 전 生涯에 남긴 1,499首의 詩 중에서 1,023首가 유배지에서 남긴 것이다. 그의 시를 분석해보면 내용에 따라 ‘離別의 情恨과 至親에 대한 그리움’, ‘知己와의 神交를 통한 삶의 慰安’, ‘束縛된 自我와 學問에의 沈潛’, ‘事物에 투영된 君子的 삶의 지혜’, ‘流配客의 苦惱와 憂國憐民의情’<sup>1)</sup>으로 요약된다. 소재의 시풍을 대체로 ‘萬鈞之勢’와 같다고 평하며 ‘雄拔

1)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 檀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淵宏'하다고 말하고 있다.

解配 후에는 '湖蘇芝'로 지칭되었고 조선후기 官人文學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놓음으로서 '館閣三傑'로 칭송되었다. 소재의 五律은 文字의推敲와 情調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러 특히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소재는 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독특한 思想家였을 뿐만 아니라 宣祖朝 詩壇의 영수이기도 하였다. 선조조 때에는 宋詩, 특히 江西詩派를 배우려는 詩的 指向이 계속되는 가운데 道學詩가 활발하게 창작되는 시기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宋詩의 散文性, 技巧主義, 지나친 이상주의에 반발하여, 唐詩를 배워 詩의 抒情性, 音樂性, 形象性을 회복하려는 지향이 李達, 白光勳, 崔慶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였다.<sup>2)</sup>

소재는 중국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아 난해하고 기교적인 시를 쓴 湖陰 鄭士龍, 芝川 黃廷彧과 함께 館閣三傑로 일컬어지면서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시인이다.

蘇齋는 유배지에서 『夙興夜寐箴解』 및 「人心道心辨」, 「執中說」 등을 저술하고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一齋 李恒 등과 논변하였다. 이 논문들은 朱子學과는 이질적인 心性論과 工夫論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와 후대의 사류들로부터 異端에 물든 학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퇴계는 소재의 사상을 神學, 象山學에 물든 것으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비평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그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관점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그는 朱子의 시대에 홀연 나타난 陸象山에 비유되기도 하였다.<sup>3)</sup> 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문학과 함께 소재의 陽明學자로서의 위상을 살펴야한다. 그는 선조16년(1583)에 『改正大學』을 찬집하였는데 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蘇齋先生大學集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재는 자신의 사상을 간결하게

2) 安炳學, 「三唐波 詩世界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3) 李植, 『澤堂集』, 「別集」 권15, 「追錄」, 民族文化推進會, 1992.

표출하는 哲理詩를 창작하였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퇴계와 함께 士林系列의 시인으로 분류되며 多岐한 시적 지향들을 모두 融攝하여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였던 뛰어난 시인이었다.

本稿에서는 그의 經綸과 思想을 深度있게 천착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漢詩文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既存研究의 現況과 研究方法

지금까지 소재에 대하여는 그의 詩文學과 思想研究(陽明學·心學)로 구분되어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어 왔음을 살필 수 있다. 소재 연구는 최초 서수용의 「蘇齋 盧守愼 詩研究」<sup>4)</sup>가 있으나 주로 소재의 학문과 詩語의 묘사에 중점을 두었고 이밖에 조동일의 『韓國文學通史』<sup>5)</sup>에서 蘇齋의 館閣文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후 李承和는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sup>6)</sup>를 통하여 주로 유배기의 시를 중심으로 내면세계의 情懷를 상황과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1989년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에서 소재의 사상·문학·정치적 활동 전반을 究明한 발표가 있었는데 문학을 맡은 金光淳은 현행문집과 소재 宗家에 있는 典籍들을 통독하고 소재의 시를 형식·주제별로 구분하고 현행 문집에 실려 있지 않는 68題 78首의 시들을 게재, 후진의 연구 자료로 제시하였다.<sup>7)</sup> 이 연구의 뒤를 이어 채용복은 소재의 사상을 자세히 考究하고 사상과 문학의 관련성을 시도하였으며 挫折, 挫折과 超克, 超世指向의 共存을 소재시의 주제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였다.<sup>8)</sup> 신태영은 소재시의 주된 情調를 悲哀, 葛藤, 挫折로 구

4)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5) 趙東一, 『韓國文學通史』2, 知識産業社, 1988.

6) 李承和, , 앞의 논문.

7) 金光淳, 「蘇齋 盧守愼 研究」, 『韓國의 哲學』第17集,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89.

8) 蔡龍福, 「蘇齋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분하였고 ‘變俗作雅’의 표현기법이 주된 형식적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sup>9)</sup> 근자에 辛香林은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研究’<sup>10)</sup>를 통하여 소재의 학문이 朱子學에서 心性論과 修養論을 수용한 陽明學으로의 轉變되었음을 究明하였다.

本稿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비교 검토하고 소재의 문학세계가 한국 漢文學史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바르게 점검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에서 의도한 연구의 여러 한계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 II. 生涯

蘇齋 盧守愼(1515~1590)은 조선 中宗朝부터 宣祖 때의 시인으로 자는 寡悔, 호는 蘇齋(穌齋), 伊齋, 暗室, 茹芝老人이다. 본관은 光山으로서 1515년(중종10) 서울의 남부 樂善坊에서 태어났다. 先祖는 唐代에 九兄弟가 東來하여 新羅에서 벼슬하였는데 七代祖 때에 尙州로 옮겨 살았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계열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尙州 化寧에 경제적 정진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高麗 監門衛 大護軍 愼의 12世孫으로 증조 敬長은 敦寧府 參奉으로서 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조부인 珮는 豐儲倉守로서 議政府 左贊成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부친 鴻은 活人署 別提로서 領議政에 증직되는 영예를 얻었다. 그의 학통은 李彥迪과 李滉과의 학문적 관계로 보아 嶺南 士林派에 가까운 것 같다.

한미한 벼슬로 자식에게 기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그의 조부 珮는 남달리 영특한 손자를 통하여 가문의 公明을 기대하였고 조부의 願望이 소재에게 잠재되어 靑雲의 꿈을 안게 된 것이다.

9) 申太永, 「盧蘇齋의 詩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10) 辛香林,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그는 나면서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옷을 입을 만할 때부터 의젓함이 어른 같았다.<sup>11)</sup> 어릴 때부터 총명 박학하여 문장을 짓는데는 경술 방면에 더욱 조지가 깊었다. 시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는데 6세에 入學하여 때로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시를 지었다.

此筆出於君	이 붓을 선생님께서 주셨으니
爲君能成文	선생님을 위해 글을 짓겠어요.
未知何以報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他日登靑雲	훗날 청운의 길에 오르겠어요. <sup>12)</sup>

6세의 어린 나이에 즉석에서 시를 지어 靑雲의 뜻을 펼치고 있으니 가히 그의 천재를 알 수 있다. 17세에 當世의 名儒인 李延慶(1484~1548)의 사위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20세(중종29)에 生員, 進士 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初, 會, 殿試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典籍, 兵曹佐郎을 거쳤으며, 仁宗이 즉위하자 司諫院 正言이 되어 李芑를 탄핵하였다. 이후 仁宗이 8개월 만에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자 尹元衡과 李芑가 獄事를 일으켜 乙巳年(1545) 九月에 파직되었다. 이 시기는 李延慶, 李滉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던 때였으나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그만 좌절하고 만다. 33세(1547)에 順天으로 定配 되었다가 그해 9월에 珍島로 移配되었다. 그곳에서 茅屋을 지어 蘇齋<sup>13)</sup>라 현관을 걸고 19년을 지내다가 52세(1565)에 槐山으로 移配되었다. 진도에서 19년, 槐山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經史를 연구하여 학

11) 盧守愼, 『蘇齋集』 「行狀」 104. “生而粹美 自能勝衣 屹然如成人”

12) 盧守愼, 『蘇齋集』, 「附錄」, 『蘇齋集解題』 113.

13) 소재 노수신의 호는 蘇와 蘇 두 가지로 錯綜되어 쓰여 지고 있다. 『蘇齋集附錄』 「年譜」에는 “營茅三間取一爲齋 輒扁曰蘇蓋本朱子 所謂我讀我書如病得蘇云爾”라 하여 蘇를 썼으며 후손들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鵝溪 李山海가 撰한 祖父 珮의 신도비나 朴承任이 찬한 아버 鴻의 신도비에도 蘇로 쓰고 있음을 볼 때 어느 것이건 무방하다 할 것이나 本稿는 일 반적 사류를 좇아 蘇로 쓰기로 하였다.

문이 성숙되었고 다수의 문학작품이 나왔는데, 쑤 生涯에서 남긴 1,499首의 시중에서 1,023首가 이 流配期에 남긴 시이다. 이에 대해 李珣는 “수신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학문이 더욱 精하여졌고 때로는 시를 지었는데 忠君 愛親의 지극한 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유배 중에 학문의 뿌리가 더욱 튼실하여 졌음을 알 수가 있다.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소재가 宦路에 들어선 시기는 中宗朝였으나 곧 이어 仁宗이 즉위 했을 때를 전후한 무렵은 정치 사회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1554년 왕위를 계승한 仁宗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聖君의 자질을 갖추어 상하의 기대를 모았으나 8개월 만에 승하하자 異腹동생인 明宗이 12세의 어린나이에 즉위하였다.

1545년 明宗의 외척인 小尹 一派가 인종의 외척인 大尹 一派를 몰아내고 乙巳士禍를 일으켰는데 이는 역사상 4번째로 燕山君 이래의 마지막 士禍였다. 이 여파는 5~6년간이나 지속되어, 大尹인 尹任 一派를 찬양했다는 등의 죄명으로 유배되거나 죽은 자의 수가 백여 명에 이르렀다. 인종의 외척인 尹任을 비롯하여 左議政 柳灌, 吏曹判書 柳仁淑 및 盧守愼등이 모두 처단되거나 귀양 보내졌다. 이후 小尹 一派는 다시 良材驛 壁書 事件을 일으켜 을사사화 때 겨우 살아남았던 士類들을 뿌리 뽑으려 하였고 蘇齋는 絶島 安置의 중형을 받게 되었다. 소재는 魁科로 급제한 후 清要職을 두루 역임 하였는데 품성이 영특하고 명민하며 학문에 힘써 規矩로써 몸을 단속하였으므로 布衣 때부터 큰 名望이 있었다. 그의 議論은 한결같이 바른 데 근거하였으므로 시속에서 매우 꺼리는 바가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배척을 당하니 識者들이 애석히 여겼다. 이미 司諫院 正言으로 있을 때에 李芑를 탄핵한 바 있는 소재는 小尹 一派에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게 되어 賜死된 다른 사류들과 같이 死籍에 올랐으나 간신히 絶島 安置의 減刑을 받았다. 주변 인물인 陳復昌, 尹春年 등의 救命운동에 힘입어 賜死를 면한 소재는 그 후 집권층이었던 小尹 一派의 끈질긴 억압과 견제를 받아 21년 동안 配所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년이 흘렀어도 그에 대한 명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기에 결국 解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의 史官들 또한 소재에 대해 心志가 高明하고 학문에 연원이 있으며 처신과 행사가 모두 올곧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마침내 52세(1566) 되던 해에 槐山으로 移配 되었다가 53세 되던 때에 明宗이 죽고 宣祖가 즉위하면서 解配되어 成均館 直提學을 거쳐 大司憲이 되었다. 이후 領議政이 되었다가 1590년에 鄭汝立을 천거한 과실로 파직되어 그해 4월에 76세를 일기로 寓舍에서 死去하였다.

### Ⅲ. 文學的 背景

소재가 살다간 16C는 朝鮮 詩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中宗시절 이후 조선왕조는 계속 번영을 누렸으면서도 안으로 모순이 누적되었다. 기존의 집권세력인 勳舊派와 新進士類인 士林派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士禍가 일어났다. 勳舊派 또는 詞章派는 詞章을 주로삼고 현실정치와 經濟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士林派 또는 道學派는 文을 載道之器로 파악하려는 宋의 朱子學의 영향으로 인해 經學내지 性理學을 위주로 하여 文學과 道學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C말엽에 이르러 詞章派와 士林派는 이론적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中宗 反正 이후 훈구파들이 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들을 축출하면서 勳舊派가 우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道學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조정에서 축출되었다고 하더라도 在野에서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어 특히 일부 朱子 학자들은 文學이 人心을 성하게 하여 道心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文學 不正論이라고 할만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sup>14)</sup> 洪萬宗은 이와 관련하여 “시는 풍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지 사물이나 경색을 읊은 것만은 아니다”<sup>15)</sup>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추세 속에 鮮初부터 宣祖~

14) 全鑿大外,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pp.229-240.

光海 이전의 시기까지는 대체로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宋의 詩風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許筠은 “우리나라의 시는 黃. 蘇를 위주로 한다.”<sup>16)</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조 초기부터 中, 明宗까지는 高麗 詩風의 연장이라고 볼 것이어서 宋詩 文學을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宣祖朝에 이르러 학풍이 사변적인 관념적 경향으로 흐르게 되어 현실생활과의 乘離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分黨으로 인한 黨爭, 壬辰倭亂 등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한 학문의 방향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제기되어 중종조 후에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詩文學은 興起 하였고 시풍의 변화도 초래 되었다. 道學의 영향을 받은 宋詩는 자연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주로 性理學的 사고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송의 시풍은 性理學의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시의 美意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사상의 기교와는 상관없는 자구마다 의리를 명백히 함에 집착하는 一字一句상의 厝琢에만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sup>17)</sup>

허균은 이러한 당시의 宋詩風 일변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本朝의 詩學은 蘇東坡와 黃山谷을 主로 삼았다. 비록 景濂한 儒者일지라도 또한 습속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 세상에 알려진 자들은 모두 그 찌꺼기를 먹어 腐牌와 坊語를 지어 놓았으니 읽으면 싫증이 난다.<sup>18)</sup>

점차 관념적이고 기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宋詩風은 시가 주는 자연스런 감동과는 멀어지고 인간의 순수한 정감이나 생활에서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學問的, 文學的 배경으로 인해 唐詩風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는 金昌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5)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下, 太學社, 1980, p.610.

16)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p.345. “本朝詩學以蘇黃爲主”

17) 全鑿大外, 위의 책, p.275.

18)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p.345. “本朝詩學以蘇黃爲主 雖景濂大0其亦科白 其餘鳴于世者 率綴其粗粕 以造腐牌坊語 讀之可厭”

穆廟의 때에 이르러 文士들이 성하게 일어나 唐詩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중국의 王世貞, 李攀龍의 시가 점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드디어 바라고 사모하여 모방하기 시작하며 精巧하게 되기에 힘썼다.<sup>19)</sup>

이와 같이 學唐의 풍조는 宣祖 때에 이르러 시풍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許筠은 그의 저서 『惺叟詩話』를 통하여 唐詩風으로 이름을 떨친 三唐詩人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는 宣祖代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다. 盧蘇齋가 杜甫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이 대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과 白玉峰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가 그 흐름을 밝혔다.<sup>20)</sup>

선조 때에는 이미 唐詩風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인물로 盧蘇齋와 黃芝川 및 三唐詩人을 거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蘇齋의 위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成宗朝 때 시작된 學唐은 宣祖 때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 유배기에 杜甫에 沈潛되어있던 소재는 杜甫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과 오랫동안 師友關係를 맺으며 그들의 시풍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학당의 앞뒤를 잇고 삼당시인에게 큰 영향을 준 蘇齋의 研究는 조선조 시풍의 변화를 조명하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19)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外篇. “至穆廟之世 文士蔚興 學唐者寢多 中朝王李之詩又稍稍東來 以始希慕倣 鍛鍊精工”

20) 許筠, 『惺叟詩話』, p.317.

#### IV. 蘇齋의 詩世界

시인은 어떠한 外物과 遭遇하여 마침내 내면에 내제된 정서와 결합될 때 詩가 창조 되는 것이다. 이 情緒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밀접히 관계되면서 여러가지로 표출되어 나온다. 특히 구속과 제약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서의 심리상태는 시인의 深味한 내적 갈등이 點綴되면서 더욱 절실히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움과 이별의 情恨, 至親의 情, 부부간의 사랑, 현실에 대한 좌절과 超越, 朋友간의 情 등 시인의 정회가 절절이 형상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情懷를 21년간의 謫居生活을 전후한 詩를 중심으로 하여 親屬에의 회귀감정인 思親之情, 兄弟之情, 戀婦之情, 神交之情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謫居期의 좌절과 이를 초극해가는 그의 의지와 소재시의 특징인 ‘變俗作雅’의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 1. 蘇齋詩의 形式 및 詩風상의 특징

소재는 일생동안 1,500여수에 달하는 다량의 시를 產出하였다. 『蘇齋集』에 수록된 1,501首와 宗家所藏 筆寫遺稿 600여首중 문집과 중복되지 않는 78首를 합쳐 도합 1,579首이다. 오언율시가 758首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칠언율시 267首 칠언절구 239首 순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소재는 悠長한 호흡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적합한 율시를 즐겨 지었으며 그 중에서도 오언 율시를 즐겨 지었다.

소재시의 작시별 연표를 보면 出仕 前 수학기의 작품이 71수이고 유배 전 사신기에는 단 한수도 남아있지 않으며 유배기의 작품이 1,023수이고 나머지는 해배 후의 작품이다. 그래서 소재시는 수학기, 유배기, 사환기로 뚜렷이 구분된다.

먼저 수학기의 시를 살핀다. 이 시기는 소재가 29세 되는 해에 장원으로 窟路에 들어서기 직전까지가 해당된다. 이시기의 작품은 己亥遊山錄과 관련한 71수가 있는데 自然의 景觀을 노래하거나 感懷를 읊은 시로 대부분 敘景觀遊詩로 老蒼하고 奇健함이 만년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1)</sup>

다음은 그의 나이 31세에 을사사화로 파직되어 해배되기까지의 유배기이다. 이때의 작품이 7할 정도로 적거지인 충주, 순천, 진도, 괴산 등지에서 고독과 좌절, 침울한 심정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때의 시를 許穆은 소재의 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운문은 海島 19年の 澤畔吟으로 楚나라의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sup>22)</sup> 고 하였으며 洪萬宗도 소재의 작품에 대해 “悽婉하고 沈鬱 悲壯하다.”<sup>23)</sup>고 하였다. 이 시기는 불운한 시기임에도 창작이나 학문 연찬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시기의 작품이 소재의 내면세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음으로 소재문학의 실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仕宦期の 작품은 挽詞나 哀悼詩, 宴會나 모임을 주제로 한 시가 대부분이며, 下賜物을 받거나 임금의 命을 받고 그 감회를 읊은 시, 스님과 交驩한 시가 몇 首 있을 따름이다.

## 2. 哲學思想과 詩風과의 關係

소재의 理氣論은 우주의 본체를 환상적이며 감각적인 氣를 주로 하여 파악 하려는 것이며 우주의 本體를 분석하려는 논리적인 면에서 理와 氣를 분리하여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소재는 天·地·物·心에는 각각 體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1) 趙炯, 『龍洲遺稿』, 「蘇齋先生文集後序」, p.185. “其老蒼奇健 奚謝晚年”

22) 許穆, 『記言』, 「蘇齋先生神道碑銘」, p.136. “其有韻之文 海島十九年 澤畔吟也 正與屈左徒 窄愁幽思之同”

23) 洪萬宗, 『小華詩評』 下.

그리고 모든 사물은 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 할 수 있는 氣는 모두 動靜하며 그 조리가 理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體用의 논리에 일관하여 道心은 本具한 천리이며 인심은 既發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제가 택한 체용의 논리는 動靜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究明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理와 氣의 관계론이 아니라 理氣—物인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소제는 최상의 실천윤리를 體用 논리로 究明하려는 것이었다. 즉 대상에는 體와 用이 있으며 그와 같은 체용이 있게 하는 仲介範疇가 動靜이라는 논리에 의하여 中을 해명한 것이다. 결국 그의 학문은 경험세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현상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구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중시하는 實用主義의 世界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제는 시 표현방식에는 전통적이고 典範的인 한시양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正格 보다는 破格을, 典雅한 詩語보다는 俚語나 俗語를 使用하고있는데 그의 世界觀이 문학세계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3. 親屬에의 回歸感情

#### 1) 事親之情

情懷의 세계가 오롯하게 형상화된 소제 시는 至親에 대한 정을 읊은 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떠나는 哀歎, 애달기만 한 夫婦의 情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모에 대한 蘇齋의 孝는 각별하다. 유학자로서 충효에 一以貫之한 소제의 생애는 특히 뛰어난 孝子象을 보여주고 있다.

下山復下山    산을 내려오고 또 내려오니  
亂山千萬縈    산은 어지러이 얽혀 있구나.  
(中略)  
永懷我父母    오랫동안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兄弟居王京	형제는 王京에 있다네.
胡爲獨遠遊	어찌 홀로 멀리 떠나느냐?
化寧吾世塋	化寧 땅이 우리 先塋이로다.
君寵今三年	임금의 총애 삼년 만에
累多乃解纓	허물이 많아 벼슬을 그만 두었네.
學而不成學	배워도 학문을 이루지 못했고
只是禍所嬰	단지 禍를 만났을 뿐이네.
深山讀我書	깊은 산에서 책을 읽으며
庶見古人情	저어기 옛사람의 정을 살펴보리라.
省讐分遺棄	반성컨대 허물 있어 버림을 받았으나
亦云聖朝氓	역시 임금의 백성이로다.
我知父母心	나는 부모의 마음 알고 있으니
且無傷吾行	나의 행실 傷함이 없으리로다. <sup>24)</sup>

위의 시는 문과에 壯元한지 삼년 후인 31세(1545)에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파직 후 유배 길에 오를 때에 黑石에서 지은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죄인의 몸이 되자 부모에 대한 심정이 더욱 간절하다. 형제는 한양에 남아있는데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심정이 애절하다. 魁科 及第 후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쳐보지 못하고서 삼년 만에 大尹, 小尹의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버림받은 신하일지라도 역시 임금의 백성임을 상기 시키며 戀君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마지막 聯에서 비록 유배를 가는 몸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니 ‘身體髮膚 不敢毀傷’의 효심을 엿볼 수가 있다.

다음은 파직 후 부친의 生辰을 맞아 지은 시를 보자.

年年十二月	해마다 12월에는
和氣滿中堂	화기가 중당에 가득하였다.
棲萼欣無故	형제간에 무고함을 기뻐하고
鷄鳴慶有康	昏定晨省 건강함을 기뻐하네.

24) 盧守愼, 『蘇齋集』 卷一, 「黑石吟」, p.75.

國憂還自棘    나라가 어지럽고 몸은 형자에 있으니  
 家報又誰將    집안소식 또 누가 전해주려나.  
 獨坐千山裏    홀로 깊은 산 속에 앉아  
 空懷獻北岡    헛된 감회만 북쪽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네.<sup>25)</sup>

위의 시는 31세 되던 해에 乙巳土禍로 파직당하여 忠州에 귀양 갔을 때의 것이다. 부친의 생신을 맞이하여 모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모님의 生辰을 맞아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형제간의 무고함과 부모님의 건강을 서로 기뻐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忠州로 귀양왔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함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산속에 홀로앉아 북녘에 계신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모습에서 작가의 처절한 心懷를 살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은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珍島에 들어 간지 15년 동안 定省하지 못하고 유배 죄인이 된 不孝之罪를 생각하게 되자 극도의 自暴之心으로 변하였다. 다음은 珍島에서 지은 「家書書訖泣書」를 보자.

自我入此島    내가 이 섬에 들어와서  
 幾番書此書    몇 번이나 이 편지를 썼던가?  
 一書斷百魂    한 장의 글에 온 넋이 끊어지니  
 有魂能幾餘    남은 넋은 그 얼마이려나?  
 今既十五年    지금 이미 십오년  
 尙能書何歟    편지를 쓴다한들 무엇하리오?  
 豈天獨不忍    어찌 유독 하늘만은  
 以慰父母且    차마 부모를 위로하지 못하게 하는가?  
 顧父母得書    생각건대 부모님 편지를 받으시면  
 見之必沾袂    글을 보시고 반드시 옷깃 적시리라.  
 袂沾何時休    옷깃 적시길 언제나 그치려나?  
 我顧天喪予    난 하늘이 날 버리기를 원하네.<sup>26)</sup>

25) 盧守愼, 『蘇齋集』 卷一, 「家君生辰 在觀音寺」, p.77.



위의 詩는 47세(1561) 되던 해에 집으로 편지를 쓰고 난후 비통한 심정으로 지은 시이다. 15년이 지난 뒤에도 解配의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事親의 글을 보낼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져 마침내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夫子之情은 天倫일진데 어찌하여 하늘은 천륜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글을 읽고 눈물 흘리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立身揚名은 커녕 不孝之罪의 고통과 함께 ‘我顧天喪予’를 부르짖고 있다. 이 처절한 悲壯은 流配罪人이 된 不孝에 대한 悔恨이 응어리진 것이라고 하겠다.

소재의 孝心은 세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珍島에서 槐山으로 內移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모습을 實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때 盧守愼은 옮겨진다는 말을 듣고 그날로 길을 나서 얼척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돌아가 부모를 뵈겠다는 생각에 급했다. 곤궁한데에 처했어도 변하지 않는 志操를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다.<sup>27)</sup>

蘇齋가 51세(1565)되던 해에 20년 동안이나 事親하지 못한 罪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얼척과 아이들마저 도외시하고 오직 부모님 뵈기만을 갈망할 만큼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이다. 소재의 이런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효심은 훗날 宦路에서도 그치지 않았는데 54세 되던 때에 父親喪을 당하여 三年喪을 치르고 난 후에 大司諫에 재수되자, 병중의 모친을 위해 사양하므로 이때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를 하루도 좌우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 노모를 서울로 모시도록 하라.”<sup>28)</sup>고 명하여 끝내 大司諫에 재수할 정도였다. 그의 事親의 情은 유배 중에서나 解配 후에도 孝心으로 가득하여 宣祖조차도 그 지극정성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事親孝心을 읊은 시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자식의 도리가 어디에

26) 盧守愼, 『蘇齋集』 卷四, 「家書書訖 泣書三十韻」, p.155.

27) 『明宗實錄』, <20年 12月 20日條>. “是時 盧守愼聞量移 即日登途 所蓄孽妾 兒子皆置而不顧 惟以歸見父母爲急處困不變之操於此益可驗矣”

28) 許穆, 「蘇齋先生 神道碑銘」. “許以母病請告 上曰 ‘卿一日不可不在左右 以老母來京’”

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 2) 兄弟之情

소재가 謫居생활 중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형상화 한 詩는 모두 43수가 되는데 모두가 형제간의 두터운 友愛를 그리고 있다. 특히 소재는 결혼 후 後嗣가 없어 아우 克愼(자 무회)의 둘째 아들 大海를 양자로 입적시켜 代를 잇도록 하였으므로 그 우애가 각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지에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시를 살펴본다.

丙午春正月	丙午年 춘정월
今朝日出時	오늘 아침 해 뜰 녀에
數行青柳暗	몇 줄기 푸른 버들은 어둡고
萬點白雲垂	만점 흰 구름이 드리웠네.
點點頻相顧	침묵한 채 무릇 서로를 돌아보니
悠悠只自知	唯唯히 다만 각자의 일을 아는구나.
晨昏君善事	그대가 昏定晨省을 잘 섬기면
我死復何悲	내가 죽어도 다시 무엇을 슬퍼하리오. <sup>29)</sup>

이 글은 소재가 파직당한 후 忠州로 귀양 갔을 때의 것으로 형제간의 惜別과 두터운 우애를 묘사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형을 찾아 왔다가 새벽 길 떠나는 동생을 바라보는 착잡한 심회와 서로 돌아보며 형제의 무고함을 기원하고 불효한 자기를 대신하여 事親至孝를 부탁하는 애뜻함을 엿볼 수 있다. 尾聯에서는 동생이 定省을 다 할 것을 굳게 믿음으로 해서 죽음에 이른다 해도 비통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兄弟愛의 極致를 이루고 있다.

동생 無悔를 보내고 나서 지은 시인 「別無悔 醉後作」에서는 “술은 너 그렇게 하고 詩는 근심을 잊게 한다더니 모두가 虛言이로다. / 취중에

29) 盧守愼, 『蘇齋集』 卷一, 「又贈無悔」, p.78.

외로이 읊조리니 다시 가슴 메어지는듯하네.”<sup>30)</sup>라고 견디기 어려운 惜別의 정을 노래하였다.

다음은 順天에 있을 때의 시이다.

已誤乾坤愛	이미 天倫을 그르쳤으니
難爲父母情	부모의 정 잊기가 어렵구나.
蒼茫看我弟	창망히 내 동생을 바라보니
奔走送君兄	분주히 형을 보내는구나.
泉下逢顏面	샘 아래에서 얼굴을 보고
人間決死生	인간 死生을 결정하는구나.
遄歸侍二老	빨리 돌아가 兩親을 모시고
明報子心平	아들의 심정 편안함을 아뢰어라. <sup>31)</sup>

위의 시에서 事親할 수 없는 비통함을 읊으면서 뒷일을 동생에게 부탁하며 이별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천륜을 그르쳐 자식이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頤聯 에서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멀리 順天에까지 따라온 동생을 쓸쓸히 바라보는 심정과 謫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애쓰는 동생의 분주함을 바라보고 있다. 어차피 인간사는 하늘의 명으로 결정되지만 기약할 수조차 없는 유배의 길을 떠나고 보니 生死조차 알 수 없는 비정함이 깃들여 있다. 尾聯에서는 그러한 고행 길을 떠나는 자신의 처지도 잊어버리고 있다. 아들이 모두 부모의 곁을 떠나 있음을 상기하고는 한시라도 빨리 부모에게 돌아가서 비단 귀양 간 아들 이지만 마음만은 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지극한 孝를 나타내고 있다. 21년간의 유배생활 도중 형을 대신한 동생의 사친은 대단하였다. 절해고도인 진도까지 찾아오는 동생의 형에 대한 정은 훗날 蘇齋로 하여금 請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였다. 解配 후 吏曹判書

30) 盧守愼, 『蘇齋集』 卷一, 「別無悔 醉後作」, p.79. “酒寬詩遣都虛語 醉裏孤吟更熱腸”

31) 盧守愼, 『蘇齋集』 卷一, 「道中別舍弟」, p.83.

가 된 후부터 右議政이 된 때까지 자주 동생의 請으로 인해 清廉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이다.<sup>32)</sup> 이와 같이 소재의 시중에는 기나긴 유배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봉양하지 못한 죄책감을 달래준 정과 後嗣를 잇게 해준 고마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兄友弟恭의 세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시를 통해 解配 후에도 동생으로 하여금 不廉之名을 듣기는 했으나 이들 간의 兄弟愛는 타인의 嫉視에 머물러 있지 않을 結晶이라 할 것이다.

### 3) 戀婦之情

蘇齋는 17세(1531)에 스승인 灘叟 李延慶(1484~1548)의 여식 廣陵李氏와 혼인하였다. 이씨와의 결혼 60년은 기쁨보다는 비애가 더 많았다. 결혼한지 14년이 되도록 後嗣가 없었는데다가 31세의 한창 나이에 22년의 긴 유배로 말미암아 別離의 아픔을 처절히 겪어야 했다. 존경하는 스승의 女息과 혼인까지 하였으니 師弟의 情은 더욱 돈독하였다. 부부의 정은 깊어갔으나 유배죄인이 되어 스승을 욕되게 하고 또한 부인과 생이별을 한 기구함과 애절함을 詩로 형상화하였다.

그가 33세에 順天에서 장인과 부인을 생각하며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夜坐泣書」를 보자.

義已如端木	義는 이미 端木과 같으니
恩何啻直卿	은혜가 어찌 直卿뿐이라.
頑甥辱教訓	어리석은 사위는 교훈을 욕되게 하고
順婦誤平生	순종하는 부인은 평생을 그르쳤네.
薄命紅顏落	薄命하여 홍안이 시들어가지만
深情白骨明	깊은 정은 백골이 되어도 분명하리라.
三從已無計	三從之道는 이미 꺾할 수 없으니

32) 『宣祖實錄』 卷八, 七年 甲戌條. “右相 盧守愼 自爲吏曹判書 因厥弟克愼之請 多不廉之名”

死別莫吞聲 死別하여도 울음소리 삼키지 못하리.<sup>33)</sup>

首聯에서 孔子와 子夏(名: 端木賜)의 나이가 31세 차이였음을 상기하며 스승인 李延慶과의 나이차가 31세임을 묘사하고 있다. 사제의 의를 표현 한 것이다. 아울러 朱子와 그의 사위인 直卿의 관계를 떠올리며 장인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스승의 가이없는 사랑에 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있으며 순종하는 부인은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잘못 만나 평생을 그르쳤으니 함께 살 수 없는 비애를 대신 달래주고 있다. 그러나 薄命하여 흥안이 시들어 늙어가지만 소재의 깊고 넓은 정은 백골이 되어도 분명하리라는 부부의 애뜻함이 頸聯에서 오롯히 형상화되었다. 미련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해 三從之道 중 아들을 따르지 못한 안타까움을 대신 달래고 있으며 사별할 때는 가슴을 저미는 서러움을 목놓아 울부짖어도 한을 풀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스승과 婦人의 서신을 받고 읊은 「得聘君書及妻信」이다.

結髮爲夫婦	머리 올려 부부가 되었건만
吞聲永訣離	소리죽여 울면서 영원히 이별하였네.
他生猶未卜	타지의생활이 오히려 定해지지 않았는데
同穴已難期	함께 묻히는 것도 이미 기약하기 어렵네.
墨潑靄淺淚	눈물에 편지 젖어 먹이 피어나고
行斜亂筆辭	줄은 비틀비틀 어지러운 사연들 밖에
執書憐爾寡	편지를 잡고 그대가 홀로 살면서
無子可從之	따를 아이조차 없음을 안타까워하네. <sup>34)</sup>

首聯에서는 혼인한지 16년만에 死生을 기약하지 못하는 別離를 당하여 타의에 의하여 별거해야하는 부인의 애절함을 묘사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유배자의 내일을 알 길이 없고 同穴에 묻힐 것이 어려우리라고

33) 盧守愼, 『蘇齋集』 卷一, 「夜坐泣書 三律」, p.86.

34) 盧守愼, 『蘇齋集』 卷一, 「得聘君書及妻信」 其二, p.84.

생각하는 夫情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괴로운 심사는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되어 비틀거리 써 내려 간 편지를 적시고 있으며, 尾聯에서는 편지를 들고 생과부가 된 부인의 의지조차 없는 처연한 모습이 연상되자 哀想에 잠겨 憐憫의 정을 토로하였다.

다행히 22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歸鄉한 후로는 함께 天壽를 누리다가 76세 되는 해(1590) 3월 12일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소재 또한 한 달 후인 4월 7일에 세상을 떠나 하늘의 比翼鳥가 되었다. 이때는 鄭汝立 謀叛事件에 연루되어 선조22년(1590) 파직된 몸이었는데 부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 老軀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운명한 것이다. 소재 부부는 60년을 함께하였으나 20년을 忍苦의 세월로 보냈다. 후사가 없어 동생 克愼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켜 뒤를 잇게 하였다. 동갑 나이로 같은 해 한달 간격으로 타계하였으니 비단 桎梏의 삶속에서도 끝내는 후광을 享有한 보람이 있었고 하늘이 맺어준 天生의 연분이었다.

#### 4) 神交之情

소재가 관직에 있던 기간은 3년에 불과하였으나 그간의 교우관계는 다양하였다.

을사사화 후의 良才驛 壁書事件으로 사류의 죄를 결정할 때 死籍에 오른 소재를 동년인 尹春年과 吏曹 佐郎 때의 陳復昌이 애써 구명하여 絶島安置의 감형을 받게 되었다. 결국 朋友는 救命之恩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재는 유배시기에 한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사귀어 유지하였는데 유배기간에 나타난 인물명이 50여명일 정도로 많은 사람과 교류하였으며 신분계층도 다양하였다. 소재는 기나긴 유배생활의 참담한 현실을 學文研究와 詩作 그리고 폭넓은 交友關係로 극복하였다. 유배 기에는 오랜 지기와의 서신 교환 뿐 아니라 유배지의 다양한 계층과의 정신적 交遊가 많았다. 특히 유배지의 白光勳, 崔慶昌과의 만남은 忘年의 정신적 교우관계로서 소재의 謫居生活에 큰 위안이 되었다.

流配期の 詩를 통한 그의 교우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流配간지 3년만(1549)에 珍島에서 지은 詩이다.

萬事添華髮    만사에 흰머리를 더했지만  
 三年未死神    3년이 지나도 精神을 죽이지는 못하네.  
 殘花不相惜    시든 꽃은 아깝지 않으니  
 却是夢中人    도리어 꿈속의 사람이려나.<sup>35)</sup>

河西 金麟厚가 보낸 시에 次韻한 것이다. 유배 된지 3년 만에 흰머리는 더해지고 친구들의 救命으로 연명한 목숨이지만 죽은듯한 세월이 3년이 지나갔음을 아파하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꽃이 시들듯이 이 한 목숨 아깝지 않지만 헤어져 상봉할 수없는 朋友의 소식은 마치 꿈속의 일인 양 아득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소재에 대한 河西의 情도 각별한 것이어서 『河西集』에는 소재에게 보낸 詩가 16首가 있다.

특히 소재가 진도에 謫居 中일 때 三唐詩人 中的 玉峯 白光勳과 孤竹 崔慶昌이 찾아와 受學한 바 있다. 이것은 소재와 三唐詩人간의 學唐系譜와 깊은 인연이 되었다. 소재가 44세 되던 해에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白光勳은 나이 차이(22년)를 극복하고 忘年之交를 맺고 있다. 다음은 白光勳이 소재를 찾아와 함께 술 마실 때 지은 「白生光勳至夜吟」이다.

十月初三日    시월이라 초사흘  
 朋來自遠方    친구가 먼 곳으로 부터 왔네.  
 神交久名聞    정신의 교제라 이름 들은지 오래이고  
 義合可年忘    의로 만나니 나이 잊을만 하네.  
 語笑專傾倒    말하고 웃을 때는 완전히 傾倒하고  
 形骸任醉僵    몸뚱이는 한껏 취해 넘어 지누나  
 此生聊爾耳    이생에 애오라지 그대 뿐이니  
 後會更何當    후에 만나기를 다시 어찌 기약하리.<sup>36)</sup>

35) 盧守愼, 『蘇齋集』 卷二, 「次韻河西」, p.113.

36) 盧守愼, 『蘇齋集』 卷四, 「白生光勳至 夜飲」, p.149.

首聯은 초겨울임에도 먼 길을 찾아온 白光勳을 맞는 소재의 마음이 바로 ‘有朋自遠方來 不亦悅乎’의 심정이다. 頷聯은 비단 22년의 나이차가 있을지라도 오래전부터 이름을 들어온 터라 의기투합하여 神交로 나이조차 잊어버리고 이내 忘年友의 우의를 맺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頸・尾聯은 유배생활로 외로운 소재가 白光勳을 만나 혼쾌한 심정으로 술에 취하면서 師弟關係로 발전하게 되는 백광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호방한 교우 속에서 유배지의 悲哀를 달랠 수 있었다. 이밖에 백광훈에 대한 시가 4수가 있는데 특히 白光勳에 대한 소재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일찍이 杜甫의 詩法을 터득한 소재에게서 唐風을 배웠을 것이고 훗날 백광훈의 詩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후 백광훈은 소재의 解配 후 36세 되던 해에 소재의 천거로 白衣 製造官이 되어 문명을 떨쳤으니 둘의 관계는 學問的, 人間的 정을 나눈 아름다운 사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孤竹 崔慶昌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최경창도 또한 일찍부터 소재와 교분을 나누었다. 그는 영암 출생으로 소재가 진도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 수학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짓기도 하였다.

瘡癘三秋忍	瘡疾은 가을 내내 계속되더니
風塵一月開	풍진이 한 달이나 이어졌네.
賢人酒冷冽	맑은술은 차고도 사나운데
正字意胚胎	정자의 생각이 발미가 되는구나.
破戒緣生興	戒酒를 깨뜨리니 생기가 일어나고
忘言爲死灰	말을 잊었으니 불 꺼진 재와 같구나.
摧頽老癡漢	엎어지고 넘어지는 병든 노인이련만
非子復誰哀	그대가 아니면 다시 누가 슬퍼하리오. <sup>37)</sup>

위의 시는 소재를 찾아온 崔慶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은 것이다. 이 당시 소재는 瘡疾에 걸려 의원으로 부터 술을 금하라는 명을 받고

37) 盧守愼, 『蘇齋集』 卷四, 「崔正字慶昌携酒相看」, p.144.



있었다. 그러나 술을 들고 찾아온 崔慶昌과는 병세도 잊어버리고 취하도록 마시고 있다. 병세 보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이다. 首聯에서는 병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頷·頸聯에서는 금주령을 지키려 했으나 찾아온 崔慶昌에 대한 반가움으로 이를 깨뜨리고 있다. 몸에 해롭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지극한 忘年之交를 살필 수 있다. ‘非子復誰哀’는 소재의 崔慶昌에 대한 각별한 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朋友의 救命으로 賜死를 면한 소재는 비록 만날 수 없는 유배객이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河西에 대한 애뜻한 友情을 살필 수 있는 바, 그와의 交遊는 謫居人의 큰 위안이 되었다. 특히 白光勳, 崔慶昌과는 忘年の 師友關係로서 정신적 交遊를 나누면서 이후 三唐詩人의 출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4. 挫折과 超克

뜻이 학문에 독실하여 장원으로 급제하고 이조좌랑이 되어 환로에서 이상을 펼치려 하였건만 을사사화가 일어나 대간에서 논개 하여 관작이 삭탈 당하고 정미 년에 죄가 더하여 鄭橫과 더불어 편협 된 허기를 갖고 부박함을 선동 하였다 하여 죄 아닌 죄를 짓고 실각되어 귀양 가게 되었다. 격리된 유배생활에서 오는 疏外感, 內的葛藤에서 오는 우울 등이 겹쳐 극도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재는 유배생활의 곤궁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기대감, 현실을 順命意識으로 받아들이려는 체념 등을 왕성한 創作力과 悲壯함으로 詩化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한다.

소재의 유배기는 대개 유배 1기와 유배2기로 나누게 되는데 順天으로 귀양 가기 전까지를 유배 1기로 보고 珍島, 槐山으로의 移配를 유배 2기로 나누는 것은 그의 시상이 다소 異質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배1기는 충주와 상주에 머물면서 쓴 91수가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내용적 특징은 파직된 후 총애 받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안

타카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 사면받기를 바라는 자가의 심상, 현실을 순명으로 받아들여려는 순명의식 등이 작품 속에 표현되어있다.

八月潮聲大	팔월에 조수소리 드높기도 한데
三更桂影疎	삼경에 계수나무 그림자 성기기도 하여라.
驚棲無定鰓	보금자리에서 놀라 뛰는 산도깨비는
失木有轟轟	나무 잃고 내달리는 날다람쥐라.
萬事秋風落	모든 일은 추풍에 낙엽처럼 떨어지니
孤懷白髮梳	외로이 시름에 잠겨 백발만 어루만지네.
瞻望匪行役	내 한갓 나그네로 오지는 않았지만
生死在須臾	죽고삶이 한순간에 놓여있구나. <sup>38)</sup>

위의 시는 진도에 귀양간지 19년 되던 추석절에 지은 시이다.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차례에 참석치 못했다. 소재는 가족들이 모여앉아 자신의 빈자리를 보고 눈시울 적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차가운 조수소리는 애간장을 녹이고 휘영청 떠있는 보름달을 보게 되니 그 감정을 首聯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달이 너무 밝아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면, 그림자의 군데군데가 달빛으로 뚫어져 전체적으로 성기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달빛이 너무 밝아 도깨비도 머물 곳이 없어졌고 다람쥐들도 놀라 나무를 타고 달리지만 쉼 곳이 없다고 했다. 표현은 재미있을지 모르나 심사는 무겁고 우울하다. 頸聯에서는 시적배경이 8월의 가을이듯이 가을바람에 모든 꿈,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백발만 남은 상태라 했다. 尾聯에서는 謫居 19년에도 解配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소재의 심상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유배초기의 시 한편을 보기로 한다.

天地難逃義	천지의 의리는 숨기기 어렵고
庭闈罔極恩	정위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38) 盧守愼, 『蘇齋集』 卷五, 「十六夜 感嘆成詩」, p.162.

三年惟有疾    삼년동안 오직 재앙만 있었으니  
 相愛莫招魂    서로보고 싶어도 혼백을 부르지 말게나.  
 志立終無變    세운 뜻은 서로 변함이 없는데  
 心馳久不存    마음은 내달려 없어진지 오래  
 西風灑悲淚    서풍에 설픈 눈물 뿌리건만  
 懷抱向誰論    이 고달픈 회포를 누구와 나눌런지.<sup>39)</sup>

首聯에서는 임금에 대한 의리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잃어 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타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유배 온 지난 3년간 재앙만 있었다며 보고 싶어도 꿈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꿈속의 혼백이 죽은 혼백인지 산 혼백인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롭기 때문이다. 頸聯에서는 자신이 세운 입지와 현실의 괴리를 읊었고 尾聯에서는 헤어지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서글픈 심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진도 유배의 척박한 공간에서의 곤궁함을 읊은 모습을 한번보자.

檢得百廿合    백 이십 홉을 얻어 두었는데  
 復數日罄甌    며칠 후 쌀독이 비었습니다.  
 (中略)  
 嘗聞天地大    일찍이 듣건대 천지의 위대함에도  
 人猶有所憾    사람은 오히려 유감스럽게 느끼는 법  
 況我一窮囚    하물며 한 궁한 죄수로서  
 已幸不絕嗷    먹는 것 끊기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네.  
 多財祇益罪    재물 많으면 더욱 죄 되리니  
 有罪焉用賧    죄 있으면 어찌 속죄하리.<sup>40)</sup>

유배지의 모든 생활이 제약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육구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

39) 盧守愼, 『蘇齋集』 卷三, 「醉次閑生韻 奉別示懷」, p.115. 민성의 자는 仲明으로 소재가 진도로 이배된 후 가끔 찾아오곤 했다.

40) 盧守愼, 『蘇齋集』 卷四, 「無題」, p.148

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 억압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公이 진도로 귀양 갈 때 군수가 당시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어 百端으로 고통을 주면서, “죄인이 어찌 쌀밥을 먹을 수 있나”하고 산간에 있는 고을에서 좁쌀을 바꾸어다 주었다. 하루 밤에는 달이 밝은데 公이 아이종으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였던바 군수가 말하기를 “죄인이 어찌 宴樂할 수 있는가” 하고 종을 가두었다.<sup>41)</sup>

소재 시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좌절 갈등 양상은 현실적 처지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주된 원인은 현실을 塵世로 규정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불효, 스승이며 장인인 李延慶의 죽음, 처와 동기에 대한 그리움이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하다.

枯槁吟湘澤	마르고 여윈 몸으로 호수가 에서 시를 읊고
沈綿臥茂陵	병이 깊어 무릎에 누웠다.
暄衣當狐貉	따뜻한 옷은 여우나 오소리 가죽 같고
晚食等何曾	늦게 먹은 저녁밥은 何曾과 같구나.
災鯨應天愛	잘못한 자에 재앙 줌은 응당 하늘의 법
荊舒竟孰懲	오랑캐 같은 자들을 마침내 누가 징계하라.
羈孤東雄味	외로운 나그네 군센 부리를 꼭 다무니
一叫恨無能	한번 울부짖고 싶어도 능력 없음이 한스럽네. <sup>42)</sup>

위 시는 1555년(명종34) 12월에 쓴 작품이다. 병든 야윈 몸으로 달밤에 홀로앉아 온갖 시름에 잠겨있음을 보게 된다. 울적한 마음을 풀려는 심

41) 金時讓, 『涪溪記聞』, “盧蘇齋守慎謫珍島 守臣希時宰風旨 困辱百端曰 罪人安得玉食 至質梁米于山郡以給之 一夜月明 蘇齋使童奴吹笛 守曰罪人安得燕樂囚其奴”

42) 盧守慎, 『蘇齋集』 卷四, 「十三夜 高坐觀書 百慮紛然 信筆書之 凡七首」 其七, p.144.

상을 夾註로 ‘自遺’이라 적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首聯에서는 澤畔吟한 楚나라 屈原이나 관직에서 물러나 茂陵에 우거한 司馬相如를 시적 話者로 삼아 자신의 입장을 환치시켜 울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 聯에는 궁핍한 의식을 오히려 분수에 넘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자조하고 있다. 이어서 참소와 거짓으로 죄짓는 무리들에게 天道로서 道義 政治가 구현되기를 갈구하지만 귀양살이하는 기구한 운명에서 좌절하고 마는 무능을 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는 유배생활의 좌절과 실의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의 성리학적 超克意志로 극복하여 世事에 임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있음으로 후일 삶의 역전이 가능하였고 불후의 글을 남기게 된다. 소재는 ‘朝聞道’의 구호처럼 자신의 불행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그의 학문에 대한 지향점인 ‘精’과 ‘一’이라는 일관된 의지로 진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讀書」라는 다음의 시는 유배지의 당당한 지향을 엿볼 수 있다.

仲尼畏匡人	仲尼는 匡人을 두려워했고
文王囚姜里	文王도 姜里에 갇혔었지.
死生在前了	생사가 눈앞에 달려있어도
處之恬然耳	편안히 처해있을 뿐
識此爲何人	이를 아는 이가 누구이런가?
千載子朱子	천년 뒤의 두부자라.
畢竟揭一言	필경 말 한마디 걸어놓고
分明見道理	도리를 분명히 나타내리라. <sup>43)</sup>

공자나 문왕과 같은 성인도 고난을 당하여 역경을 거친 후 큰일을 하였음에 비추어 생사에 구애됨이 없이 주자의 글을 열심히 읽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소재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유배지에서 저술되었음을 살피게 되는데 조선학계에 크게 주목되는 역작들이 流配期에 치우친 반면

43) 盧守, 『蘇齋集』 卷一, 「讀書」 其一, p.84.

그 후 仕宦期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역작이 유배 전 기간에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음은 학문의 힘으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自我 喪失의 좌절감을 超克하였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 5. 變俗作雅의 表現技法

허균은 『국조시산』에서 소재의 시 「愼氏亭懷無悔甫弟」을 보고 ‘變俗作雅’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변속작아’란 이속한 것을 변화시켜 우아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원래는 海東江西詩派의 鼻祖인 山谷 黃庭堅이 사용한 ‘以俗作雅’와 같은 말이다. 산곡은 “세속의 말을 雅하게 만들고[以俗爲雅], 옛말을 새롭게 만드는것[以故爲新]은 백전백승하기가 마치 孫武와 吳起의 병법과 같다고 했다.”<sup>44)</sup> 여기서 雅의 의미는 우아하다는 말 말고도 ‘드물다’의 ‘貴’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俗語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일상적인 상용어나 諧謔的인 말, 지명이나 관직명, 숫자·간지 등을 들 수 있다. 소재시를 논함에 있어 ‘變俗作雅’라는 표현이 適意하다고 보아 고유명사의 詩語化와 時間의 詩語化로 나누어 소재시의 표현 특질을 분석하고자한다.

#### 1) 固有名詞의 詩語化

조선조의 載道的 문학관을 표방하는 문인들은 용사를 중히 여겨 典例나 前例 곧 출처가 있는 것이 존중되고 당시의 常語나 俗語는 사용이 금기시 되고 있다.

그러나 허균이나 이수광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해독하기 쉬워야하고 전례가 없는 常語나 俗語도 詩나 文의 언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소재시의 詩語 使用에 대한 허균의 논평일단은 매우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44) 黃庭堅, 『山谷集』 卷六. “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길은 평구역에서 그치고, 강물은 판사정에 깊다. / 버들이 침침하니 청과역이 저물었고, 하늘은 개었는데 백악산은 봄이다.”라는 것은 아주 좋다. 그 담금질해서 만들어 낸 묘함이 있을 뿐이니 쇠를 녹여서 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 해로우라?<sup>45)</sup>

다음은 고향을 배경으로 한 지명의 詩語化다.

可愛我鄉里    사랑하는 내 고향은  
尙州縣化寧    상주고을 화령이라네.  
黃山原臙臙    황산의 들은 기름지고  
沙谷水冷冷    사곡의 물은 맑게 흐른다.<sup>46)</sup>  
(後略)

이시는 소재의 초기 작품으로 「鄉人乞詩」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고향사랑을 만나 시를 지어준 것인데, 여기서는 尙州縣 化寧, 黃山, 沙谷 등 지명이 주는 향토적 서정과 함께 고향에의 회귀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青橋漢羅來    청굴은 한라에서 왔고  
白頭珍島因    백두는 진도의 죄수라네.  
風濤幸同濟    다행히 바람과 파도 함께 건넌기에  
氣味肯相侔    그 정취는 기꺼이 같네.<sup>47)</sup>  
(後略)

이 시는 진도에서 지은 시로서 그 지방의 풍물에 익숙해지면서 지명과 사물을 묘사하고 있다. 이로서 보자면 사용한 언어가 시작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여져 있는가가 문제이지 특정의 언어를 쓰고 못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가 지니는 美意

45) 許筠, 『惺所覆韻藁』 卷二十五, 「說部」 四, 「惺叟詩話」, p.365. “路盡平丘驛 江深判事亭 柳晴青坡晚 天晴白岳春 亦殊好 其在鑪種之妙而已 何害點綴成金乎”

46) 盧守愼, 『蘇齋集』 卷一, 「鄉人乞詩」, p.69.

47) 盧守愼, 『蘇齋集』 卷二, 「青橋」, p.108.

識 형성에 도움만 줄 수 있다면 俚語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 2) 時間의 詩語化

丙午春正月    병오년 봄 정월  
今朝日出時    오늘아침 해 떠오를 때라.<sup>48)</sup>

孟月中旬庚戌秋    맹월중순 경술년 가을이라  
兩翁騎馬過川遊    두 늙은이 말 타고 시내건너 놀러갔다.<sup>49)</sup>

위의 시들은 모두 날짜를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 시들은 날짜를 詩語化하여 당시의 정황을 드러내는 기록성의 성격을 갖게 된다. 다음은 시간대를 시어화한 시 한 편을 소개한다.

不盡他生淚    래생의 눈물 다하지 않았지만  
猶存十載囚    오히려 십년동안 죄수로 있네.  
題詩攝提格    시를 짓노니 갑인년  
十月仲旬頭    시월 중순 초라네.<sup>50)</sup>

## V. 諸家の 評 및 文學史的 意義

### 1. 諸家の 評

소재의 시는 대부분이 유배기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소재에 대한 詩評도 유배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申欽은 『象村集』에서 “소재가 진도에 있을 때에 지은 시는 警絶한 것이 많아서 人口에 膾炙되었다.”<sup>51)</sup>고 하였

48) 盧守愼, 『蘇齋集』 卷一, 「又贈無悔」, p.78.

49) 盧守愼, 『蘇齋集』 卷三, 「漁川遊浦示曹克仁」, p.117.

50) 盧守愼, 『蘇齋集』 卷三, 「夢侍家君 顏色華豐 既寤泣記」, p.137.



으며, 眉叟 許穆은 「蘇齋先生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운문은 海島 19년의 澤畔吟으로, 바로 초나라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sup>52)</sup>고 하여 시의 내면적 정서를 정의하였다. 柳夢寅은 『於于野談』에서 “소재 노수신은 진도에 19년간 유배갔다 …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論語와 杜詩에 치우쳐 二千회에 이르렀다.”<sup>53)</sup>고 하였다. 소재 자신도 無所不讀의 왕성한 독서 중에서도 『論語』와 杜詩에 치중하여 “나의 시문은 『論語』 안에서 가장 힘을 얻었다.”<sup>54)</sup>라고 自評하고 있다. 이렇듯 기나긴 유배생활을 통하여 굳세고 힘차며 무게가 있는 시가 창작 되었다는 評을 듣고 있다.

또 梁慶遇는 「霽湖詩話」에서 “典籍 車雲老가 팔을 걷고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小家의 작품은 비록 한 篇 한 句는 읊을 수 있지만 섬세한 것을 합하여서 索然하여 기력이 없다. 蘇齋의 작품에 이르면 萬鈞이나 되는 勢가 있으니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풀 사이의 귀뚜라미들이 울다가 큰 종소리를 듣고 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sup>55)</sup>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洪萬宗의 ‘雄拔富瞻’·‘淵宏’하다는 평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유배기의 아픔과 고뇌를 학문탐구로 극복한 소재의 시는 얇은 재주로 공고롭게 써서 잠깐 동안 흥을 돋구는 정도를 벗어나 洪鐘이 울리는 듯한 굳세고 힘찬 경지를 이룬 것이다.

다음은 解配 후의 소재에 대한 평을 살펴본다. 中宗時부터 宣祖時까지 뛰어난 시인으로 湖蘇芝를 꼽는다. 이는 湖陰 鄭士龍, 蘇齋 盧守愼, 芝川 黃庭彥을 말한다. 그들은 모두 大提學의 반열에 올랐으며 권신들간의 다툼에서 더러 패배를 맛보기는 했지만 물려받은 전통과 자기능력

- 
- 51) 申欽, 『象村集』, 「晴窓軟談」, 景文社, p.224. “其在海島所作詩 多警絕 膾炙人口”  
 52) 許穆, 『記言』 卷十六, 「蘇齋先生神道碑銘」, p.136. “其有韻之文 海島十九年澤畔吟也 正與屈 左徒 牢愁幽思之同致”  
 53) 柳夢寅, 『於于野談』 卷上, p.26.  
 54) 李晳光, 『芝峯類說』 卷十四, 「詩藝」. “我之詩文 最於論語中得力”  
 55) 梁慶遇, 『詩話叢林』, 「霽湖詩話」, p.339.

으로 조선전기 官人文學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서 館閣三傑로 칭송되었다.<sup>56)</sup>

南容翼은 『壺谷詩話』에서 “내가 사견으로 망령되이 高麗와 朝鮮의 시를 論할진데 鄭湖陰 士龍은 鍊悍하고, 盧蘇齋 守愼은 淵宏하며, 黃芝川 廷彥은 典特하다.”<sup>57)</sup>고 하였다. 洪萬宗도 “세인들이 근대 명가를 청함에 반드시 湖蘇芝를 말한다. 湖陰은 組織精緻하고, 蘇齋는 雄拔富瞻하며, 芝川은 橫逸奇偉하니 참으로 가히 相角한다.”<sup>58)</sup>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湖蘇芝를 말할 때 당시의 시문학에서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재의 시는 ‘淵宏’·‘雄拔’하다는 평이 두드러진다. 農巖 金昌協은 그 중에서 소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소재의 시는 宣祖初에 가장 뛰어났다. 세상에서는 湖蘇芝라고 말하지만 세분의 시는 실로 같지 않다. 湖陰의 組織 鍛鍊한 것은 西崑體와 비슷하나, 풍격은 蘇齋만 못하니 소재가 그 중 나올 것이다.<sup>59)</sup>

호소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소재의 시풍이 가장 낫다고 평하고 있다. 소재는 호음과 비교하여 자신이 오언율시에 뛰어난 반면 호음은 칠언율시에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양인을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소재가 스스로 말하기를 “七律은 湖陰만 못하나 五律은 낫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심히 옳다.<sup>60)</sup>

56) 趙東一, 앞의 책, p.363.

57) 南容翼, 『壺谷詩話』, p.387. “余以臆見 忘論勝國與本朝之詩曰 鄭湖陰士龍之鍊悍 盧蘇齋守愼遲 淵宏 黃芝川廷彥之典特”

58) 洪萬宗, 『小華詩評』, p.792. “世稱近代名家 必曰 湖蘇芝 湖之組織精緻 蘇之雄拔富瞻 芝之橫逸奇偉 眞可相角”

59) 金昌協, 『農巖集』, 「雜識」外篇, p.373. “盧蘇齋詩 在宣廟初 最爲傑然 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 組織鍛鍊 頗似西崑 而風格不如蘇 蘇齋其最優乎”

60) 金萬重, 『西浦漫筆』, p.622. “蘇齋自謂七律不如湖陰 而五律勝之 此言甚公”

이밖에도 ‘蘇之五律’·‘湖之七律’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바, 대부분 소재의 五律은 문자의 推敲와 문자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견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의 시는 ‘沈鬱’·‘悽婉’하다는 시평이 있기는 하나 유배기의 시에 대한 부분적 평가로 보이며 전체적인 시풍은 ‘雄拔’·‘淵宏’·‘富瞻’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배기 동안 학문에 精研하여 得力한 것이 유배기의 왕성한 詩作을 통하여 그의 詩世界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文學史的 意義

朝鮮 中期는 대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외적으로는 명나라의 復古主義 문학사조가 일어났고 내적으로는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唐詩風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蘇齋의 역할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唐詩風이 수용되는 경로를 살펴본다. 黃玟은 「讀國朝諸家詩」에서 “占畢齋는 끝내 杜甫를 배운 사람이다.”<sup>61)</sup>라고 하여 金宗直을 조선전기 전형적인 學杜家로 보고 있다. 또한 허균은 「孫谷集舊書」에서 忘軒 李胄(?~1504)로부터 시작된 學唐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

지나간 弘治, 正德 年間(1488~1521)에 忘軒 李胄가 처음으로 당시를 배우기 시작하여 沈著, 奇麗하였고 沖菴 金淨(1486~1520)이 이어서 韋應物, 錢起의音を 지었으니 두 사람이 一斑이라고 할 만하나 애석하게도 그들의 나이가 한스럽다.<sup>62)</sup>

윗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學唐은 金宗直을 필두로 하고, 이후 성종 때의 李胄로부터 시작되어 金淨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허균은 또한 선조 때의 詩壇에서 그 중심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1) 黃玟, 「梅泉野錄」 卷四. “占畢終爲學杜人”

62) 許筠, 『孫谷集』, 「孫谷集舊書」. “往往弘正間 忘軒李胄之 始學唐詩沈著奇麗而 沖菴金文簡公 繼起韋錢之音 二公足稱一斑 而惜也年命恨之”

우리나라의 시는 선조 때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다. 노소재가 두보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이 代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과 白玉峯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가 그 흐름을 밝혔다.<sup>63)</sup>

선조 때에 이르러 소재와 芝川 黃正彧이 杜甫의 법을 얻었고 三唐詩人이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湖蘇芝의 湖陰 鄭士龍도 일찍이 孫谷 李達에게 杜法을 가르쳐 주었다. 湖陰도 학당의 시풍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湖蘇芝는 모두 당시풍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湖蘇芝 세 사람은 學唐派였다. 한편 唐風을 크게 떨친 三唐詩人은 모두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바 크다. 특히 白光勳은 22세 때부터 사제 관계를 맺었으며 36세에는 소재에게 천거되어 白衣 製述官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소재는 白光勳과 崔慶昌에게 그들의 杜詩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인 것이다. 결국 학당의 경로는 妄軒 李胄를 거쳐 沖菴 金淨, 湖蘇芝, 三唐詩人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6세기 문단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唐詩文學을 정착시킨 三唐詩人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소재의 위상은 漢文學史上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VI. 結論

소재는 宦路에 들어선지 3년 만에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22년간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는 유달리 영민하여 소년시절로부터 학업에 전념하고 規矩로서 몸을 단속하여 큰 명망을 얻었다. 그러나 소운 일파인 李芑를 탄핵한 죄로 배척 당하여 본인의 삶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配所에서 풀려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행을 學文研鑽과 詩作을 통하여 타인들이 宦路에서 당쟁과 개인의 영

63) 許筠, 『許筠全書』, 「惺叟詩話」,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pp.233-234.  
“我朝詩至宣廟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芝川代興 崔白法唐而李益之闡其流”

달에 함몰되어 榮辱을 거치는 동안 孤島 珍島에서 오히려 궁벽하나마 淸淨한 인생을 삶으로서 후일 세상으로 부터 기회를 얻어 크게 쓰임 받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선조 즉위 후 弘文館 直提學을 거쳐 大司憲이 되었고 領議政이 되었다가 鄭汝立을 천거한 죄로 파직되어 그해 76세를 일기로 一生을 마쳤다.

朝鮮朝는 明宗朝까지 高麗詩風의 연장기로서 宋詩文學을 따랐다. 中宗 즉위 후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조 때에 이르러 시풍의 변화가 두드러져 송시풍이 당시풍으로 전환 되었으며 湖蘇芝와 삼당시인이 출현하였다. 유배기에 杜詩에 침잠된 소재는 두보의 시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 등과 사우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시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 學唐의 앞뒤를 잇고 三唐詩人에게 큰 영향을 준 소재의 詩 研究는 조선조 시풍변화를 살피는 好資가 될 것으로 본다.

그의 生涯에서 1,499수의 시 가운데 1,023首가 유배기에 남긴 것들이다. 이를 내용에 따라 ‘이별의 情恨과 至親에 대한 그리움’, ‘지기와의 神交를 통한 삶의 위안’으로 나누어 조명해 보았다. 이별의 정한과 지친에 대한 그리움에서는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 고향을 떠나는 哀歡, 애달기만 한 夫婦의 情을 노래하고 있다. 유배 죄인이 된 悔恨과 부인에 대한 悲哀 등이 어우러진 그의 시는 이로 인해 沈鬱하고 悽惋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지기와의 神交를 통한 삶의 위안’에서는 특히 白光勳, 崔慶昌과의 사우관계를 통한 두터운 정회와 三唐詩人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諸家の 평을 보건대 소재의 시풍을 대체로 ‘萬鈞之勢’와 같다고 하면서 ‘雄拔’·‘淵宏’으로 평하고 있다.

한편 소재는 당시 經典의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학문의 뿌리를 ‘心’을 강조 하는 데에 두었다. 그는 이에 따라 ‘存心’을 강조하고 판단의 척도를 良識에 두겠다는 ‘唯心主義’적인 경향을 피력하였다. 이는 經典이나 傳註라 할지라도 의심이 나면 자신의 양식에 의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퇴계등 주자학과로부터 ‘神味’나 ‘神學’이니 하는 비판을 받았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芝峯은 그의 시에 대하여 ‘優體’라는 비평을 가했다. 즉 남을 즐겁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俳優의 遊戲’와 같은 詩라는 惡評인 것이다. 그러한 평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학문적 경향과 유배라는 환경에서 얻어진 破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에는 자신의 號나 字, 그리고 지명 등을 詩語로 채택하거나 ‘有’나 ‘爲’ 등의 述語를 시구의 앞쪽에 세우는 등 破格的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배 후 湖蘇芝로 지칭되면서 조선전기 官人文學을 최고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서 館閣三傑로 칭송되었으며 그의 五律은 推敲와 情調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러 특히 뛰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재문학의 文學史的 意義는 16세기 시풍의 轉換을 先導하였고 朝鮮 官人文學을 頂上으로 올려놓은 공로 외에도 갖은 풍진을 超克하여 후반기의 영광을 성취시켜 宦路의 정상에 올랐고 그가 만년에 朱子學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心性論과 修養論을 주장하여 陽明學의 지평을 열었고 그가 살았던 桎梏의 삶속에서도 忠君 愛民의 좌표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러하기에 그는 宣祖 등극 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으며 後學들의 존숭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生 전반은 그의 학자와 문인으로서의 先覺的 모습과 또는 인간 승리자로서 모습을 同察하게 함으로서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湖蘇芝 文學과 三唐派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중기 문학을 상호 비교하여 입체적으로 구명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lt;參考 文獻&gt;

- 金萬重, 『西浦漫筆』, 『韓國詩畫叢書』 4, 東西文化社, 1989.
- 金麟厚, 『河西集』, 京仁文化社, 1987.
- 金昌協, 『農巖全集』, 景文社, 1980.
- 奇大升, 『高峰集』, 『韓國文集總刊』 40, 民族文化推進黨, 1989.
- 盧守愼, 『蘇齋集』, 『韓國文集叢刊』 35, 民族文化推進黨, 1990.
- 徐居正, 『東人詩話』, 昨盛社, 1980.
- 申 欽, 『象村集』, 『晴窓軟談』, 景文社, 1982.
- 李德懋, 『國譯青莊館全書』, 民族文化推進黨, 1983.
- 李晔光, 『芝峯集』,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4.
- 李晔光, 『文章部』, 『韓國古傳批評論資料集』 別冊Ⅱ, 계명문화사, 1988.
- 李 植, 『擇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民族文化推進黨, 1992.
- 李 珥, 『石潭日記』, 『國譯大東野乘』 4, 民族文化推進黨, 1982.
- 趙 炯, 『龍洲遺稿』, 『韓國文集叢刊』 90, 民族文化推進黨.
- 許 筠, 『許筠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 ,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黨.
- 許 穆, 『記言』, 『韓國文集叢刊』 99, 民族文化推進黨.
- , 『國譯眉叟日記』, 民族文化推進黨, 1982.
- 洪萬宗, 『洪萬宗全集』, 『詩話叢林』, 太學社, 1980.
- 『朝鮮王朝實錄(明宗)』 1986.
- 『朝鮮王朝實錄(宣祖)』 1986.
- 金光淳·文暲鉉·崔丞灝, 「蘇齋 盧守愼 研究」, 『韓國의 哲學』 第17集,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89.
- 朴守川, 「國朝詩刪의 選試觀 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 徐守鏞, 「蘇齋 盧守愼 詩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宋俊鎬, 『韓國名家漢詩選』, 文獻과 解釋社, 1999.
- 申太永, 「盧守愼의 詩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 辛香林,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 安炳學, 「三唐派 詩世界の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劉明鐘, 「羅整庵의 氣哲學과 李朝儒學」, 『人文科學』第3・4集,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 1973.
- 李丙疇, 『韓國漢文學上の 杜詩研究』, 1981.
- 李承和, 「蘇齋 盧守愼의 漢詩研究」, 檀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 李鐘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 , 「朝鮮前期 漢詩의 唐風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第18集, 韓國漢文學研究會, 1995.
- 李鍾虎, 「蓀谷 李達과 三唐派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李惠榮, 「湖陰 鄭士龍의 詩研究」, 忠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 全鏐大外, 『韓國古典詩學史』, 麒麟院, 1988.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2, 知識產業社, 1988.
- 趙誠乙, 「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 『南明學研究』第3集, 1993.
- 蔡龍福, 「蘇齋 盧守愼 詩의 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黃球夏, 「蘇齋 盧守愼의 心學」, 嶺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 韓國漢詩學會, 『韓國漢詩作家研究』, 太學社, 1996.
- 吉川行次郎 著, 鄭清茂譯, 『宋詩概說』, 聯經出版事業公私, 民國 66.



## Abstract

*A Poem Literature of Sojae No Soo-Sin / Joe Hee Chang\**

Sojae(蘇齋) spend twenty two years in a place of exile owing to the implication of ELSASAWHA(乙巳士禍) three years later, after getting into the government service.

He left great achievements which worked out the immortal literature and philosophy by sublimating these poor and adverse circumstances in a new life while he spend the bitter time owing to the political disturbance, which was not definitely different with his own will of life. We can understand that he is such an exile-poet because there were 1,023 poems created in a place of exile among 1,449 poems of all that he left.

According to contents by analyzing his poems, they can be classified by 'the affection and lamentation of parting and the yearning of friends', 'the comfort of life by associating with an appreciative friend', 'the restricted ego and the deep consideration of literature', 'the wisdom of honorable life reflected things,' and 'the distress of exile and the affection of patriotism'.

The special features of No Soo-sin's poems are to make full use of a proper noun, which are the person's name, the name of place, the name of occupation, etc, for the poetic diction, to get an excellent poetic-effect by arranging an appropriate slang word and conjunction and to have a good command of the dialogic style of one of figures of speech[重意法] and one of hyperboles[反復法] for the rhetorical device and expression.

Sojae accepted the reality as a destiny by conquering the frustration of exile and accomplished the meeting of his refined literary work with an

---

\* The Ph.D course in Sungshin Women's Univ. / hichang47@paran.com

energetically creative power and a will of adamant. By accepting Dangsipoong(唐詩風) which generally does a nature, he made an atmosphere of learning Du Bo(杜甫), and accomplished a big mark of the middle-century literature of Korea through the meeting of refined literary work. This may be why the world names him Kwankaksamgul(館閣三傑) or Hoesoji(湖蘇芝).

**【Key Words】** Hoesoji(湖蘇芝), Kwankaksamgul(館閣三傑), Dangsipoong(唐詩), exile, Yangmyunghak(陽明學).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